

2023년 1/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

2022. 12.



< 조사개요 >

1. 조사명

- 2023년 1/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2. 조사목적

-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
-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

3. 조사대상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유효 응답 업체 250개체)

4. 조사방법

-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5. 조사내용

- 전반적인 체감 경기
- 매출,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
- 주요 업종별 전망

6. 주의사항

-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7. 기업경기전망지수(BSI)의 의미

$$BSI = \frac{\text{호전(증가)표시업체수} - \text{악화(감소)표시업체수}}{\text{총 유효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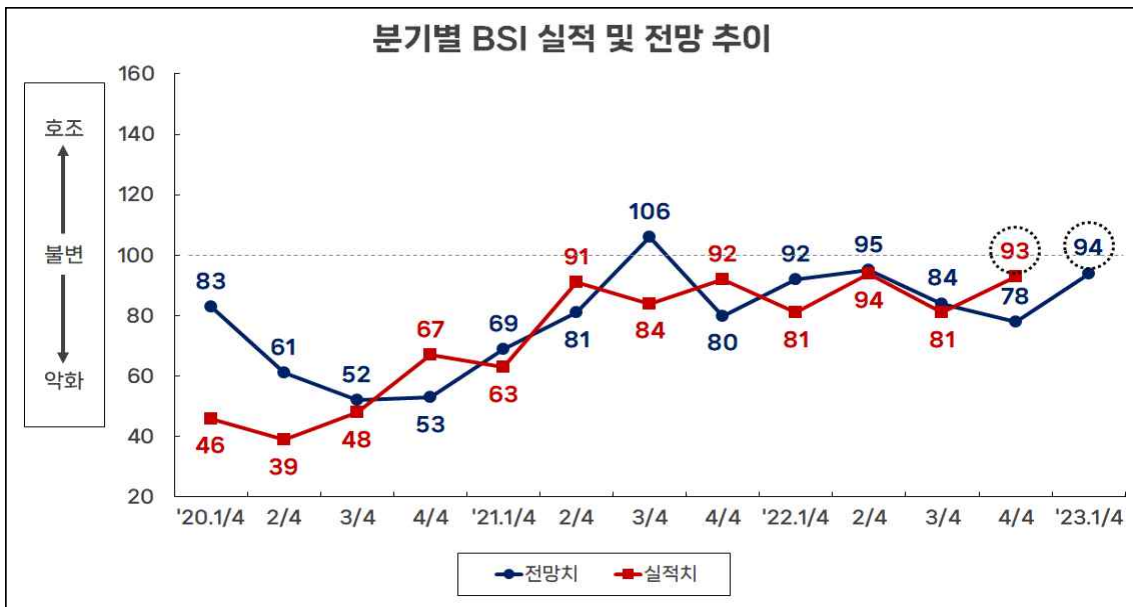
※ BSI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

1 전반적 경기 전망

■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94**, 경영활동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완화에 따른 경기 연착륙 및 완화 기대감으로 약보합세

- 22년 4/4분기 '78' → 23년 1/4분기 '94' (전분기 대비 16p 증가)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 상황에도 불구하고 美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완화 시사 및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세, 글로벌 공급차질 개선 움직임 등 경기 회복 기대
 - 반면 긴축기조는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및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기부진 등 대외 악화여건 상존

○ 2022년 4/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 '93' (전분기 대비 12p 증가)



○ 응답기업, 경기불변 및 악화 전망에 무게

- 직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가 54.4%(136개사), 경기 악화를 예상한 업체가 26.0%(65개사)인 가운데, 경기호전을 예상한 업체는 19.6%(49개사)

< 2023년 1/4분기 경기전망 응답 분포 >

(단위: 개사, %)

구분	호전	불변	악화	계
응답업체 수	49	136	65	250
구성비	19.6	54.4	26.0	100.0

2 경영 부문별 전망

■ 경영관련 전 부문에서 지수 100 하회, 기업활동여건 악화 전망
우세한 가운데 내년도 경영환경 개선 기대감 공존

○ 매출(89), 영업이익(88)

- 고물가 및 환율 강세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내수 및 수출 부진하며 제조기업 생산 둔화 흐름 지속, 매출 등 경영실적 개선 불투명

○ 설비투자(97)

-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 설비투자 위축 전망 우세

○ 공급망 안정성(94), 사업장·공장 가동(98)

- 직전분기에 이어 글로벌 공급차질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 및 기계장비·부품 등을 중심으로 완화기조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생산실적 호조세 전망

< 부문별 BSI 변화 >

구분	실적		전망	
	'22.3/4분기	'22.4/4분기	'22.4/4분기	'23.1/4분기
체감경기	81 →	93	78 →	94
매출액	83 →	89	90 →	89
영업이익	76 →	86	82 →	88
설비투자	98 →	98	94 →	97
공급망 안정성	91 →	95	90 →	94
사업장·공장 가동	90	98	93 →	98

3 주요 업종별 전망

■ 조선·기자재, 기계·장비, 조립금속 등 제조업종 호조세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악화 전망에 무게

○ 기계·장비(125), 조선·기자재(116), 조립금속(110)

- 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한 신규수주물량 및 수주잔량 증가와 더불어 후반기 인하 등 실적개선 요인 다수 존재
- 조선 및 자동차 등 전방산업 수요 확대에 힘입어 기계·장비 및 조립금속 등 관련 산업 또한 업황 개선 기대감

○ 자동차·부품(93)

- 견조한 국내 수요와 더불어 수출실적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 공급차질 일부 완화됨에 따라 경기회복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 운반선 품귀로 인한 용선료 급등으로 실적 악화 불가피한 상황

○ 섬유제품(80), 의복·모피(80), 신발제품(87)

-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소비여력 감소하며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수요 감소하였으며, 다수의 업황 회복 제약 요인 상존하며 내년도까지 불황 이어질 것으로 전망

○ 1차금속(64)

- 철강재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인한 영업실적 악화 및 건설업계 불황에 따른 수요 급락 등 경기침체 전망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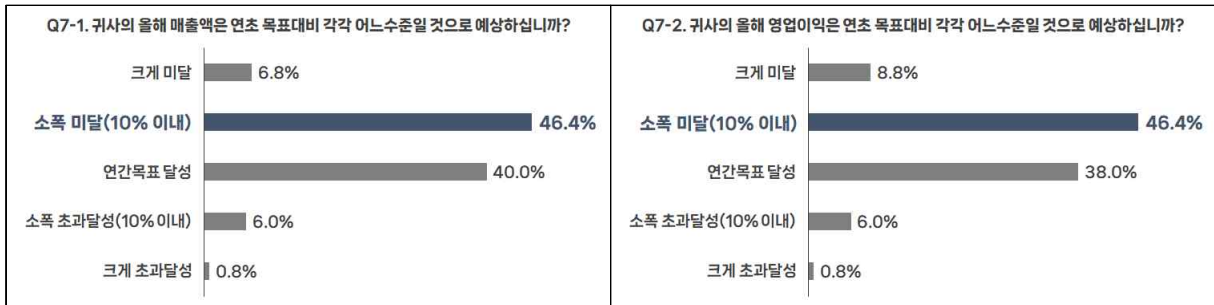
< 주요 업종별 BSI 변화 >

구분	실적		전망	
	'22.3/4분기	'22.4/4분기	'22.4/4분기	'23.1/4분기
음·식료품	78 →	107	83 →	93
섬유제품	80 →	87	67 →	80
의복·모피	60 →	93	107 →	80
신발제품	107 →	67	73 →	87
화학·고무	92 →	78	96 →	74
1차금속	52 →	84	33 →	64
조립금속	87 →	105	70 →	110
전기·전자	85 →	80	65 →	95
기계·장비	92 →	132	96 →	125
자동차·부품	83 →	87	67 →	93
조선·기자재	90 →	113	113 →	116

4 기타 경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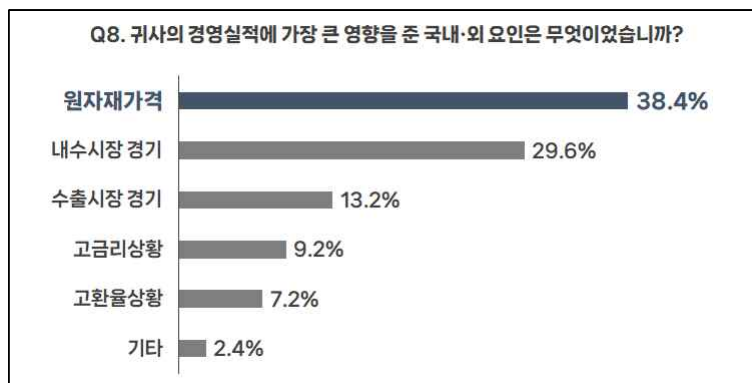
○ 대부분의 지역기업, 2022년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연초 목표 대비 소폭 미달

- 연간목표 달성한 기업이 40.0%, 초과달성한 기업도 일부 존재한 반면 크게 미달한 기업은 6.8%에 불과, 대부분의 지역기업 계획 목표 수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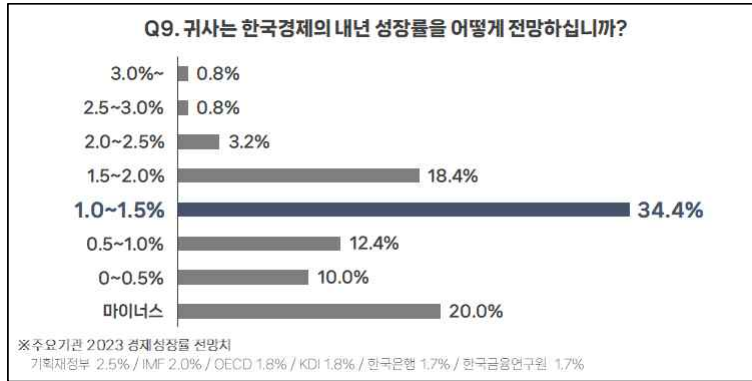
○ 2022년도 지역기업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내·외 요인은 원자재가격(38.4%)

- 국내·외 경기침체 및 고금리, 고환율 상황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원자재가격 또한 급등, 지역기업 경영실적에 가장 큰 타격
- 또 다른 요인으로 내수시장 경기(29.6%), 수출시장 경기(13.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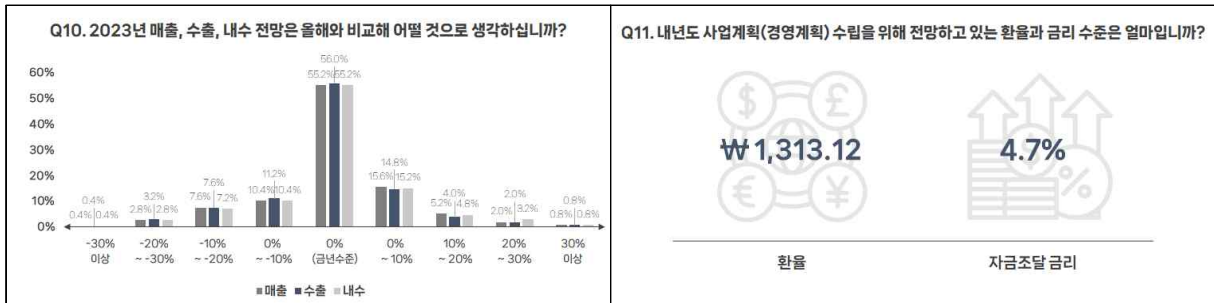


○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1.7%~2.5% 수준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지역기업 대부분(34.4%)은 1.0~1.5% 수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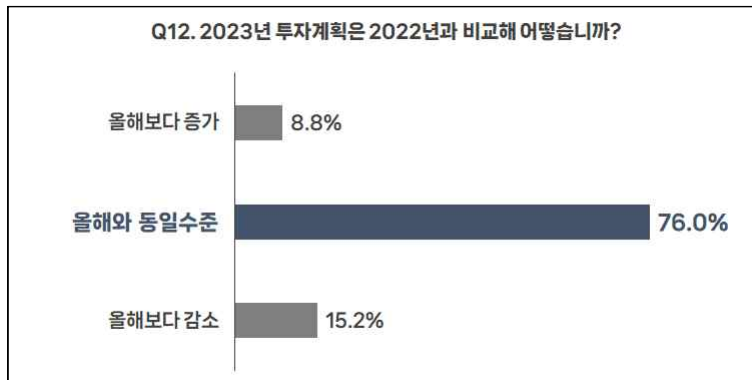
-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는 기관과는 달리 산업 현장에서 경기변동을 직접 체감하는 지역기업 입장에서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하였으며,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기업도 다수 존재



- 2023년도 매출·수출·내수실적은 금년수준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대부분인 가운데 환율은 1,313원, 자금조달 금리는 4.7% 수준으로 예상하고 사업계획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내년도 투자계획 또한 올해와 동일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전체의 76.0%로 대부분의 비중 차지



○ 2023년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고물가·원자재가 지속(3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중점 과제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29.1%)이라고 응답

- 물가 및 경기 안정을 위해 빅스텝을 시행한 이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기조 유지에 대한 정책방향 완화 요구 심리 반영

